

변화하는 건축

Changes in Architecture

필자 : 윤기병,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Yoon, Ki-byung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아리조나대학과 호주 시드니대학을 졸업하였다. 삼척도시건축과 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 근무하였다. 현재 건축계 동향을 전하는 블로그 ABRIEF (<http://www.abrief.net>)와 지속가능한 사회에서의 공간환경 문제를 다루는 블로그 SUSTAIN(<http://www.sustain.or.kr>)을 운영하고 있다.

목 차

1. 변화하는 건축 실무 환경
Changes in Architectural Practice
2. 지속가능성에 따른 건축의 변화
Sustainability and Changes in Architecture
3. 기술에 따른 건축의 변화
Technology and Changes in Architecture
4. 새로이 출현하는 아이디어들
Emerging Ideas in Architecture

변화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이다. 우리 건축사들의 어려움은 여느 때 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 전 세계적 공통의 현실이다. 이는 건축사들이 처한 외적 시장 상황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불황이 아닌 환경의 변화이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 시장 진출이 모색되고 있으며,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사무소 규모의 경제가 주목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특화의 필요성과 브랜드 확보가 절실해지고 있다. 또한 건축설계 이외의 디자인 시장

으로의 진출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속적 건축사의 영역에 대한 잠식과 함께 건축사 능력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 젊은 건축사들은 건축사의 핵심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미래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생존을 위한 건축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어떠한 대응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4. 새로이 출현하는 아이디어들

4. Emerging Ideas in Architecture

서론

건축계 불황의 높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건축사사무소들이 프로젝트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스타 건축사사무소 또한 직원을 감축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주요 이슈로 '토건' 중심의 경제개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건축사는 사회적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전에 시장 축소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불황은 변화를 촉진한다

불황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과거 서구의 경제 공황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일부 클라이언트는 파산하였으며, 또 다른 클라이언트는 경비 절감에 나섰다. 연구 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프로젝트는 취소되었고, 건축사와 디자인 분야의 종사자들은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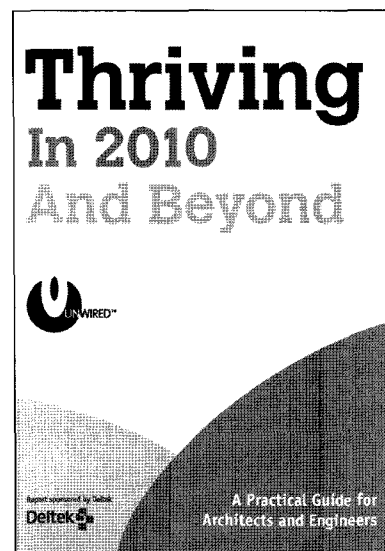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디자인은 발전하였다. 1930년대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 운동이 왕성하였다. 이태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0년대 후반 세계 디자인의 중심으로 발돋움하였다. 불황이 디자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생활 전반에서 변화를 추구하여야 하는 사회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불황은 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축 또한 발전하였다. 미국 대공황이라 불리는 시대는 1929~1939년까지 약 10년간이다. 1920년대 미국 경제 호황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에 따른 불황을 겪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 기간 중 좋은 건축이 행하여 졌다. 대표적으로 102층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의 건축이다. 터파기를 1930년 1월 22일 시작하여 1931년 5월 1일 준공식을 가졌다. 1930년대 102층 건물을 15개월 만에 완공하였다. 록펠러 센터가 1931~1940년간의 기간에 완성되었다. 또한 라이트의 낙수장 건물이 1936~1939년 기간 중 완성되었다.

호황 기간 중 많은 프로젝트들이 명품을 가장하여 진행되어 왔다. 불황은 이들 가짜를 가려내는 기회일 수도 있다. 전 세계의 은행들이 프

젝트 진행에 대한 신중성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의 은행과 보험회사들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연한 공간의 사용성, 그리고 건물의 수명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프로젝트 시행 이전에 세심한 계획과 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인 LEED 인증을 추가적 비용 없이 설계 및 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라 호사스러운 건물을 계획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대신 절제된 건축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보고서 「Thriving in the Downturn: a Practical Guide for Architects and Engineers」는 기존 건물의 개보수를 통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의 시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회사 Deltek의 의뢰로 작성된 것으로, 건축사와 엔지니어가 건설 디자인 분야에서 경기침체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이다. 건설 산업은 현재 생존의 모드에 들어 왔으나, 곧 새로운 게임을 생각하게 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가 정지된 현재, 특히 상업 부분에서 기존 부동산을 재활용하는 분야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며,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의 호황과는 반대로 건축사와 엔지니어는 경비 절감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경쟁적으로 질적인 성과물을 제공하여야 하는 환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전과 혁신이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건축사와 엔지니어가 건설 디자인 분야에서의 경기침체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
(Thriving in the Downturn: a Practical Guide for Architects and Engineers)

서비스에 관한 변화된 생각

불황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 주지만, 또한 우리를 돌아보며 또한 현명해 질 것을 요구한다. 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건축사와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스스로의 점검이 필요하게 되고 있다. 앞으로 어느 분야로 나아가고자 하며, 또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건축사로써, 전문가로써, 디자이너로써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과 함께, 자신이 무엇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며, 변화의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의 질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리고 좋은 디자인을 위한 비즈니스에 관한 생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생각과 함께 앞으로 무엇을 하여야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현실적 능력과 핵심적 능력으로 시장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불황은 건축계에 새로운 능력을 계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타 산업에 비하여 뒤쳐져 왔던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사회적 변화와 수요에 따른 정보, 에너지, 시스템 통합, 시공성, 시뮬레이션 및 다른 모델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공간의 효율성과 사용성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설계능력,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함께 기술과 지역사회를 어우를 수 있는 새로운 작업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최신 기술을 이용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혁신적 디자인 방식의 개발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건축사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전문가들을 리드하여야 하는 능력을 요구 받고 있다.

변화하는 건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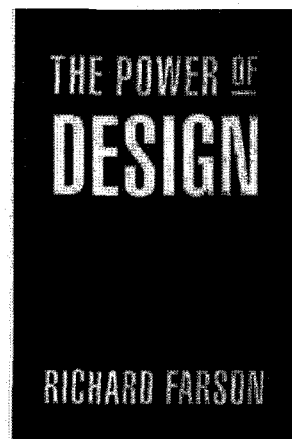
시장의 어려움은 첫째, 사무소 규모의 양극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 예로 미국 시카고를 포함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무소를 갖고 있는 Perkins+Will의 경우 시카고의 Environments Group을 흡수하였다. Environments Group은 65명의 전문가와 지원 인력을 가지고 있는 시카고에 단일 회사로는 가장 커다란 규모의 실내 부분의 회사이다. 이와 같이 설계 분야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의 세계적 기업으로 인식되기 위하여 규모를 키우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헬스 케어 분야의 디자인 회사인 HDR Architecture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가장 커다란 디자인 회사인 CUH2A가 합병하여 가장 종합적인 S+T 디자인 회사를 만들었다. 이 회사는 생명과학 연구, 물리학, 건강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가진 회사로 1,700명의 건축사와 엔지니어 및 계획가를 전 세계 40곳에서 경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난 10년간 새로운 부류의 건축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의 작업은 거

대한 이론적 배경도 없으며, 스타 건축사를 탄생시키지도 않았다. 이들은 유투피아적 이상향으로 미래의 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안하고 있지도 않으며, 새로운 혁신적인 건물의 형태를 설계하지도 않았다. 대신 이들은 일련의 독립적이며 작은 규모의 노력들을 통한 자신의 지역사회나 제3 세계에 공간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학교와 함께 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집과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실험에 옮기고 있다. 가진 자만을 위한 건축이 아닌 모두를 위한 건축, 그리고 함께하는 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건축사들의 자생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로 건축사 역할의 변화이다. 건축사의 전문성이 무엇이고 건축사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건축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즈니스 관리와 시공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건축사들은 새로운 형태와 디자인만을 생각하며,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과정을 늘이고, 복잡하고 비싼 것을 만든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난은 스타 건축사에 의하여 더욱 확산되고 있다. 비록 건축사들이 대지의 타당성과 프로젝트 수익을 늘이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아껴가며 효율성에 대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새로운 시공 방법을 지도를 통한 경비 절감과 프로젝트 질의 향상에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심리학자 Richard Farson은 건축사들은 대부분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나, 다른 개념으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사들은 공간을 디자인 한다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을 개선하고 증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일반 대중의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는 핵심이며, 이를 통하여 건축사는 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치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건축사는 사회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Richard Farson의 책 「The Power of Design」 그는 이 책에서 건축사들은 공간이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시대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축사들은 이 불황을 커뮤니티 건설에 대한 노력으로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 이는 할 일이 없어진 것에 대한 '하면 된다'는 정신일 수도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열정이라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여간, 프로 보노 디자인 작업이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포르뵈제의 생각 즉 '좋은 디자인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의 윤리적 입장을 지지하며, 특히 빈부 격차와 자원의 고갈 시대에서의 건축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건축사의 설계를 통한 인도주의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윤리경영을 통한 사회적 지지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건축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로 건축 영역의 변화이다. 건축사사무소의 위축에 따른 건축사 졸업생의 인근 분야로의 진출을 그리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상존한다. 최근 건축과 졸업생의 취업 경향은 건축사사무소 이외의 분야로 진출이다. 정부, 컨설팅 회사, 시공관리, 정치 등으로의 진출이 빈번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인의 진출은 건축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줄 가능성을 키워주고 있다. 즉, 이들은 직접 건축 설계를 하지 않을지라도 건축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야로의 진출이며, 이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건축실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건축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에서의 고위층의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며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건축 설계 이외에 정부 및 연관분야, 도시계획 분야들의 진출이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새로운 개념의 도입

새로이 출현하는 생각의 첫 번째로는 개방이라는 개념이다. 건축 설계는 개인적이며, 그 자체로 완성된 작품이라는 개념으로부터의 변화이다. 설계는 집단 지성에 의하여 만들어 나아갈 수 있으며, 프로젝트는 영원한 미완성의 개념으로의 변화이다. 오픈소스 디자인은 집단 지성에 의한 설계 개념이다. 오픈소스 디자인은 생각과 설계를 공유하며, 창의성과 기술을 공유한다. 자신의 디자인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다양한 사람과 함께 디자인을 리뷰와 협업을 통하여 보다 나은 설계안을 만들어 간다. Creative Common의 개념으로 건축사의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는 받는 방식이다. 대표적 사례로 건축분야의 비영리 기관으로 Architecture for Humanity를 들 수 있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Open Architecture Network에서는 건축에 관한 계획안과 엔지니어링 시방, 시공 방식에 관한 지식을 공유한다. 즉, 이곳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올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설계와 프로젝트 시방을 다운로드 한다. 특히 아이티 지진 사태나 쓰나미에 의한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재난 구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방적 건축을 추구하는 다른 사이트들도 등장하고 있다. World Architecture Community는 2008년 발족한 사이트로 전 세계 건축사들이 모여 포럼과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대화와 비평을 할 수 있는 국제적 장이 형성되고 있다.



Architecture for Humanity가 운영하는 Open Architecture Network

두 번째로 타 분야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가능성에 의한 개념의 도입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신경과학 분야이다. 특히 신경과학계의 실증적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공간 환경이 인간의 느낌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간환경에서 천정과 색, 그리고 다른 디자인 요소들이 인간의 창의성과 집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이 두뇌활동과 연계하여 연구가 되고 있다. 연구와 지식을 근간으로 일부 건축과에서는 감성지능 디자인이라는 과목으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일부 건축사사무소는 신경과학자를 고용하여 조명과 음향, 방향감각과 건축 디자인에 관한 신경학적 연구를 통하여 설계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환자의 회복과 작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헬스 케어 디자인을 위한 연구와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생물학 분야의 개념 도입 또한 시도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생체 모방 공학이다. 건축은 자연으로부터 벗어난 다른 공간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의 변화이다. 이는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계획에서도 자연계로부터 디자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흰개미 집의 내부 기후 조절 시스템을 모방하여 고층 건물에서 자연형 냉난방 시스템으로의 도입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모사 나무의 경우 건드릴 경우 잎이 오므라드는 현상을 깊이 연구하여 이를 동작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따른 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개념의 도입으로는 생명공학 분야를 이용하여 살아 있는 나무로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분재 형식으로 나무를 원하는 방식으로 키워 나가거나 혹은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원하는 형태로 식물을 키워 나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도 시도이다. 건물이 무생물이 아닌 생물로 스스로 만들어 가는 집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건물이 하나의 생명체로 스스로 판단하고, 자가 치유하며, 스스로 변형을 통하여 수선이나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집을 구상하고 있다. 건물이 거주자의 느낌과 건강을 느끼고 이에 적합하게 반응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소통에 대한 노력이다. 우선적으로 사회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이다. 지금과 같이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비영리 단체들의 역할이 여느 때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디자인은 부유한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를 위하여 디자인이 사용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의 지식과 능력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좋은 의도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IA는 'Institute Guidelines to Assist AIA Members, Firms and Components in Undertaking Pro Bono Service Activities'라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시간과 전문성을 어떻게 사회봉사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Public Architecture Organization은 민간단체로 1%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 건축 및 디자인 분야 사무소는 회사 시간의 1%를 공공 봉사에 투자한다. 현재 미국에 400개 이상의 회사와 150개 비영리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건축사 스스로 자신의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도운 커뮤니티와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사회적 소통을 위하여 건축사의 애원권을 위한 개집 설계, 유명 건축사의 집에서 주말 보내기 프로그램, 건축사 바비인형 만들기 등의 이벤트적 노력 또한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설계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슬로우 시티와 슬로우 푸드 운동과 함께 천천히 삶을 살고자 하는 설계의


개념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주택은 21세기 빠른 사회적 리듬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활을 단순하며 휴식 공간으로의 계획 개념이다. 주택은 가정생활에 초점을 맞추며, 축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의 계획이 중시된다. 부엌이 주택의 중심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일조 설계에 대한 강조 등 삶을 질을 추구하는 노력의 설계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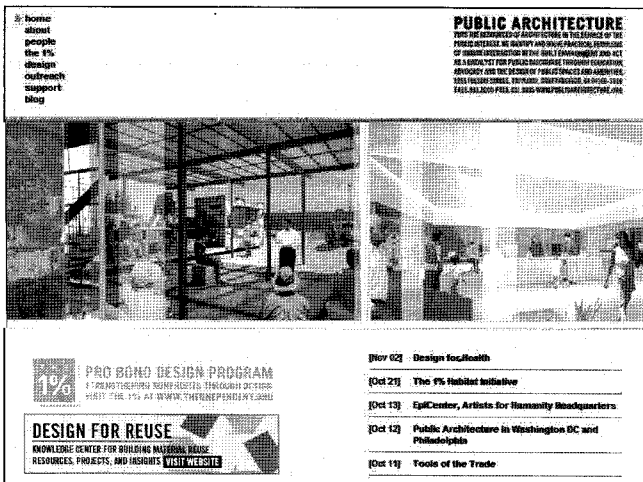
또한 과거의 개념이 재조명 받아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집은 고정적이며, 개조를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는 개념으로부터 공간의 재배치가 가능한 가변형 주택이 주목 받고 있다. 사회 고령화에 따라 수용시설로의 이주보다 자신의 주택에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적 만족과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함께 리모델링에 따른 쓰레기 배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변화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의 개념 또한 영원한 미완성이라는 개념과 함께 하고 있다. 즉, 프로젝트는 영구히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사 직업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현실로 변화하고 있다.

결론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건축기관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반적 노력으로 회원들의 작품을 알리고 홍보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UIA는 전 세계 건축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건축사협회 RIBA는 RIBAPedia라는 인터넷 지식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대학의 소개로부터 연구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좋은 인재의 확보만이 미래 건축계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으로 건축과 대학생을 돕기 위한 노력을 협회장이 직접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미국건축사협회 AIA는 경제가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헤쳐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 할지라도, 헤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Navigating the Economy Web site를 개설하여 시장 보고서, 재정 관리에 대한 조언, 바람직한 실무의 예, 관련 글 등을 수록하여 회원이 불황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건축은 힘든 전문성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하지 않은 경우 하지 말아야 하는 전문 분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건축사는 많은 돈을 벌기 힘들며,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일이 제대로 진행 되지 않을 경우 기습애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축사는 무한한 열정을 필요로 한다. 만약 종일 그림을 그리거나 계획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지 않을 경우 하지 말아야 하는 직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모든 것을 바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전문인으로서의 변화이다. 



home about people the 1% design outreach support blog

PUBLIC ARCHITECTURE
FOR THE BENEFIT OF SOCIETY THROUGH THE SERVICE OF THE PUBLIC ARCHITECTURE IS A NON-PROFIT ORGANIZATION OF INDIVIDUALS WHO ARE INTERESTED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PUBLIC BUILDINGS THROUGH EDUCATION, ADVOCACY AND THE SERVICE OF PUBLIC ARCHITECTS AND ARCHITECTS WHO ARE INTERESTED IN THE SERVICE OF SOCIETY THROUGH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PUBLIC BUILDINGS.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WWW.PUBLICARCHITECTURE.ORG

PRO BONO DESIGN PROGRAM
8 PRO BONO DESIGN SERVICES THROUGH OCTOBER 2011 VISIT THE 1% AT WWW.THEREPENDENT1%.COM

DESIGN FOR REUSE
KNOWLEDGE CENTER FOR BUILDING MATERIALS, RESOURCES, PROJECTS, AND INSIGHTS VISIT WEBSITE

[Nov 02] Design for Health
[Oct 21] The 1% Habitat Initiative
[Oct 13] EpiCenter, Artists for Humanity Headquarters
[Oct 12] Public Architecture in Washington DC and Philadelphia
[Oct 11] Tools of the Trade

Public Architecture는 민간단체로 1%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